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일상사를 따뜻한 만화로 담아내는

홍승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크게 보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던 독재 시기에는 민주화와 같은 요구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규범의 급속한 붕괴라는 일련의 변화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새롭게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측면들도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평범한 서민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이야기를 만화를 통해 그려내면서, 우리들에게 가정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홍승우(36) 화백의 작업 또한 아주 소중하게 느껴진다.

한겨레신문에 아빠 정보통, 엄마 생활미, 아들 다운이와 딸 겨운이가 등장하는 <비빔툰>을 본격적인 가족만화로 홍승우 화백이 선보인 지도 만 3년이 지나

고 있다. 어떻게 가족생활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연재 초기에 <비빔툰>도 시사만화였으나,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억지스러웠고 독자들로부터 평가도 좋지 않아서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비빔툰>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가족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싶어

어릴 적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곤충 관찰을 즐겼던 그는 지금도 어른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인터뷰할 때나 만화 연재에 관련된 일, 그리고 가끔씩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 그는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이미 만화 그리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 생활이기도 했던 형제 이야기를 소재로 주변의 이야기를 그렸고, 아직도 그 그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하고 싶었으나 만화정규대학이 없어서 이에 가장 근접한 시각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 거기에서 만화동우회를 만들어 일 년에 두 번씩 만화 회지를 발행했다. 그때도 그는 자기 주변에서 보고 겪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주된 소재로 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디자인을 결합시킨 고급스런 만화를 추구했다.

“어떤 교수님은 미대에서 만화를 그리느냐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업도 빼 먹으면서 직접 편집까지 하여 만든 만화책을 그 교수님께 보여드렸더니 출간을 권유하셔서, 두 번이나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한 고집과 능동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는 그는 디자인을 했다면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가 계속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대학시절의 활동이었다. 같이 일을 했던 재능있는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실험성이 강한 비상업적이고 파격적인, 약간 과장한다면 방종에 가까운 자유스러움을 시도해 보았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파격적이었다고 한다. 컴퓨터 채색을 통해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고, 만화의 규칙이었던 줄을 파괴해 보기도 했다. 대학 내에서 그들 만화의 마니아들도 생겨났다. 홍승우 화백은 지금도 여전히 만화의 기존 규칙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만화를 그려보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대학에서 실험성 강한 파격을 시도

95년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사무실을 차리고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일러스트의 복합체인 소위 '문화 게릴라' 활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동료들과의 의견 충돌,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별명이 바른생활

그가 만화를 연재한 잡지는 재미 위주의 만화를 요구했으나, 이는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작품세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두 번의 실패로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지금은 폐간된 ‘한겨레 리빙’이 연재 제의를 한 것이다. 그는 여섯 칸 만화 속에 보통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하는 가족만화를

인해 실패로 끝났다.

그 즈음 결혼한 그는 본격적으로 만화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93년에 신한은행 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그에게는 이전부터 만화 연재 제의가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 때문에 미뤄오고 있었다. 그는 모성인만화 잡지에 택시 기사를 주인공으로 에피소드를 그리는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택시 기사지라 그 시기의 만화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시사성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미가 없고 너무나 교훈적”이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연재를 중단당한 그는 모 청소년 잡지로부터 연재 제의를 또 받았다. 자연관찰을 좋아했던 그는 환경만화를 그렸으나, 이 또한 1년 만에 동일한 이유로 연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강한 도덕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저에게 바른생활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기도 했습니다. <비빔툰>도 따뜻한 면이 있으면서 교훈적이고, 정도를 가려고 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리기 시작했다. 98년 4월부터 이런 생각을 표현하여 연재한 <정보통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다. 그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았기에 일기를 쓰듯이 <정보통사람들>을 그렷다. 편집부에서도 호응이 좋았던 <정보통사람들> 연재 중에 한겨레신문으로부터도 연재 제의를 받았다. 모든 만화가의 꿈인 신문연재라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 온 것이다. 그는 한겨레신문에 99년 5월부터 <비빔툰>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빔툰>은 <정보통사람들>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홍승우 화백은 신문만화에는 시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빔툰> 연재 초기에는 시사만화를 그렸다. 그렇지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가 그런 시사만화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게다가 ‘여성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야’와 같은 문제성 있는 표현으로 그는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도 받았다고 한다. 그 즈음 <정보통사람들>을 연재하던 ‘한겨레 리빙’이 폐간되면서, 그는 99년 말부터 <비빔툰>에 전

넘하였다. <비빔툰>의 내용과 주인공을 바꿔 시사만화에서 지금의 가족생활만화로 전환했다.

“집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가끔은 있는 그대로, 가끔은 재미있게 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가끔은 슬픈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가족생활만화를 표방한 <비빔툰>은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 그는 엄청난 이메일과 수많은 여성잡지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집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담고 있어

“가족생활만화를 그린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4년 동안은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과 그것을 둘러싼 교육문제 그리고 부부관계, 직장문제 등 우리 사회의 가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평범하고 수수하게 공기처럼 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매일 매일 한 이야기를 완성된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고 한다. 전체 8컷으로 되어 있는 <비빔툰>에서 처음 5,6컷은 비교적 쉽게 채워지나, 마지막 2,3컷의 완성은 늘 고통스럽다고 한다. 심지어 연재의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걸릴 정도란다. 계속해서 한 작품만 하다보면 다른 것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 부부의 성생활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야야툰>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2003년 ‘오늘의 우리 만화’ 상을 수상했다.

만화가로서 비교적 일찍 빛을 본 그에게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 대해 물었다.

“아직도 카툰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성숙해져 깊이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숙의 원동력은 독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만화를 보면서 웃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흥미 유발은 만화의 전부가 아닙니

다. 생각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만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예술로 승화된 깊이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그는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보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꿈을 내비친다. 흥승우 화백의 꿈이 단지 꿈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상상력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희망과 상상력이 없는 사회는 죽어 있거나 죽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황정옥 기자)